

한국 기록보존사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

김 상 호 *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기록보존사서의 양성과정 |
| II. 기록보존사서의 기능과 교육 | V. 기록보존사서직 제도화의 조건 |
| III. 기록보존학전공 교과영역 | VI. 맺음말 |
| | Abstract |

I. 머리말

문화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혜와 노력의 결실이다. 대학교육의 환경변화는 대학 단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제도의 혁신은 물론, 학과 단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문헌정보학이 인류의 문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보존하는 전당으로서 도서관이라는 숭고한 이념의 성전에서 안주할 수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문헌정보학으로의 명칭변경은 단순히 정보개념의 강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 이 논문은 1997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2 圖書館學論集(第 28輯)

그것은 생존과 도약을 위한 전략과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간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한 관련학문 간의 협력과 경쟁, 정보전문인력의 사회적 수요와 기대는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기록보존분야는 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 했다. 오늘날 기록보존학은 역사학의 보조과학으로서가 아니라 문헌정보학의 분과학으로 정립되어가고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결과와 방법으로 여겨진다. 학문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존재가치를 지녀야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황에서 그것이 본디 다른 모습으로 더디게 나타나고 있으나, 기록보존학이 문헌정보학과의 개설교과로서 논의된 것은 오랜 일이다.¹⁾ 그것의 개설은 관련분야에 대한 도서관사서직의 이해를 위해 제기되었다.

당시 정보 및 기록매체를 다루는 전문직의 발달과 분화로 사서가 도서관사서직, 정보관리직, 기록보존직으로 세분될 것이며, 나아가 도서관학이 신문방송학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자료 및 정보유통 영역에서 함께 다루어질 것²⁾으로 전망되었던 사실에 다시금 주목해야 한다. 문화적 학술적으로 특히, 정보화 현실에서 매체 및 정보유통의 영역은 매우 중요하다. 문헌정보학은 정보와 기록매체, 그 유통에 관한 인문사회 과학적 접근에 있어서 그 기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문헌정보학이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기록보존이나 출판 등의 인접분야로 전문영역을 확대하며,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³⁾ 문헌정보학의 범주에서 도서관전문직, 기록보존전문직, 출판전문직의 양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은 사회적 요청이며, 급격히 변화하는 이 시대의 발전전략이다.

국가의 중앙 및 지방정부기관, 각종 민간기관 및 단체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축적되는 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기록보존소와 기록보존부서를 설치한다. 그리고 이들 기구는 부여된 목적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수행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원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면 기록보존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우리의 교육프로그램은 어떠한가.

1) 한복희, "문서관리학과 도서관학," 충남대인문과학논문집, Vol. 8, No. 2(1981), p. 2

2) 한국도서관학회, "도서관학교과과정 개혁을 위한 세미나 진행기록," 도서관학, 6집(1979), p. 13.

3) Robert Sidney Martin,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education for librarians and archivist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Archivist, Vol. 57(summer 1994), p. 558.

일찍이 총무처에서 기록보존인의 양성을 위해 문헌정보학과에 기록보존 관련교과의 개설을 요청한 바 있으며, 최근 정부기록보존소 당국은 기록보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도의 정비를 주장하였다.⁴⁾ 몇 개 대학에 관련교과가 개설되고, 정부기록보존소장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⁵⁾ 마련된 것은 그에 따른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서 전문인력양성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인식제고와 수요창출, 제도화를 위한 정부와 학계의 협력이 경주되지 않는 한, 우리의 기록보존은 여전히 취약분야로 남을 뿐이다.

주요 국가에서 기록보존인의 양성은 조심스럽지만 급속히 문헌정보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외국제도의 단순한 모방은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사실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본 논문은 기록보존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록보존분야의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록보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며, 문헌정보학계가 그 핵심적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기록보존이란 기록물⁶⁾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책무를 지닌 인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록보존인은 여러 유형의 기록보존기구⁷⁾에서 기록물을 물리적으로나 지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기록보존사서(archival librarian)라 함은 기록물의 수집과 관리, 보존 및 이용을 위한 제 활동을 수행하는 기록보존인(archivist) 및 기록물관리자(records manager)로서 소정의 기록보존 전공과정을 이수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한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주제 전문가, 사서교사, 문헌비평사⁸⁾, 전산사서⁹⁾ 등과 같이 일종의 전문사서를 나타내

4)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외국의 기록보존전문교육과정,” 기록보존, 8호(1995), p. 155-162.

5) 정부기록보존소운영세칙 (총무처예규 제305호) 1996. 10. 24 개정

6) 여기서 기록물(archives & records)이란 정부기관이나 단체, 개인 활동의 부산물로서 생산되어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는 자료로서 왕복문서를 비롯해 서류, 일기, 지도,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디스켓 등과 같은 각종 형태의 비인쇄자료와 시청각, 전자매체를 의미한다.

7) 여기서 기록보존기구는 국가의 중앙 및 지방정부기관, 학교 및 종교기관, 금융 및 언론기관, 병원, 일반기업체, 박물관, 도서관 등에 설치된 기록보존소 및 기록관리부서를 총칭하는 것으로 그 성격과 규모, 조직 체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조직 및 개인의 기록물을 관리 보존하는 측면에서 그 기능은 같다.

8) 김상호, “문헌비평을 위한 서평의 분석적 고찰,” 한국비블리아, 7집(1994), p. 247-260.

려는 것이다.

II. 기록보존사서의 기능과 교육

1. 기록보존사서의 전문적 기능

전문직은 배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이론, 독자적인 교육체계, 객관적인 실무능력의 평가절차, 전문분야 종사 및 사회적 기여, 전문단체의 구성,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 전문직 종사자는 대학수준의 전공교육을 통해 사회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과 실천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계속교육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록보존인은 일정한 가치를 지닌 기록물의 수집과 정리, 보존, 이용 등의 관련활동을 통해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와 사회와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직의 경영관리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기록보존인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사회에 출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과정,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기록보존협회가 정의하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기록보존인의 기능과 책무는 첫째, 기록보존인은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식별, 관리한다. 이를 위해 기록보존인은 기록물의 성격과 유용성을 이해하고, 역사적 기록물의 평가 및 정보관리전략을 개발하며, 기록물의 보존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기록보존인은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 기록물의 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기록보존인은 기록보존기관에 대한 기준과 지침, 기록보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록보존체계의 지원 및 개선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기록보존인은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이용토록 한다. 이를 위해 기록보존인은 기록물의 이용 및 홍

8) 김상호, "문헌비평을 위한 서평의 분석적 고찰," 한국비블리아, 7집(1994), p. 247-260.

9) 권기원, 방준필, "도서관자동화에 따른 사서의 전문영역 확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권, 3호(1997. 9), p. 147-164.

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장자료의 서지정보를 보급하며, 자원의 공유 및 이용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기록물의 이용을 촉진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¹⁰⁾

이와 같은 기록보존인의 전문적 기능과 책무는 사서의 그것과 비교해 대상자료의 성격과 관리방식, 활동영역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며, 사회적 책무와 접근방법은 본질적으로 같다. 기록보존인은 기록물관리자가 특정 기관 내에서 장차 파괴될 방대한 양의 기록물을 통제하는 반면, 오랜 기간동안 보유할 가치가 있는 소수의 중요 기록물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고, 박물관인의 유물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록매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역사가의 연구를 위한 기록물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을 위한 기록물의 보존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¹⁾

전통적인 기록보존활동은 실재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평가 및 수집, 정리 및 기술, 보존 및 복원, 이용 및 참고봉사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대의 기록보존활동은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에 대한 생산과 유지, 이용 등의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기록물의 성격과 특성은 기록물의 물리적인 형태와 지적 양식의 다양성, 시간의 경과, 요구의 변화에 따라 다르다. 이는 기록보존인의 독자적인 전문영역을 형성하는 기초이다. 오늘날 기록보존인이 그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록보존 및 관련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전문직이 제공하는 서어비스의 질은 전문직 종사자의 의식과 지적 기술적 능력에 달려 있다. 직업인의 의식과 능력은 교육과 경험을 토대로 한다. 우리의 기록보존 서어비스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거나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한 현실로써 능히 짐작할만 하다. 우리의 기록보존인은 도서관인과 같은 독자적인 교육과 자격, 진로, 전문단체 등을 갖추거나 제도화하고 있지 못하다. 기록보존가라는 이름은 낮설며, 그들의 도움을 기대하는 국민은 소수이다.

사회가 기록보존소와 기록보존전문직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행동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록보존인이 소극적 자세로 인내하고 관망한다면, 사회의 잠재적 요구는 대체 조직과 인원을 통해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문직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와 사명감을 지닌 기록보존인이 사회에서 양성되지 않는 한, 기록유산은 온전히 보존될

10)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Planning for the archival profession. Chicago, SAA, 1986. p. 8-30.

11)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Directory of archiv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97-1998. Chicago, SAA, 1997. p. 1.

수 없다. 기록보존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서들의 기록보존분야 진출은 편견의 단서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기록보존소에서 사서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하며, 자기계발의 진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은 사회의 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며, 사서는 사회의 문헌정보에 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직 종사자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에 대한 전문기관 및 인원으로서의 기여가 광범위하고 우수하지 못하다더라도, 그 역할과 전문성이 보편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유산과 기록매체를 다루는 활동은 세부적인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개념의 사서만을 양성하는 것은 다분화된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는 일이라 할 수 없다. 사서의 전문성은 진부한 논제이며, 전문화된 사서의 양성이 시급한 문제이다. 이는 사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기록보존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지와 통찰력이다. 어쩌면 우리의 기록보존직은 자생하기도 전에 그 역할을 유사집단에게 점유당할 수도 있다. 도서관인과 마찬가지로 기록보존인은 폭넓은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성의 확립에 어려움을 지닌다. 결국 이는 전문성의 세분화와 훈련 및 능력의 강화로 타개해야 할 것이다. 자체 기준의 강화를 통해 사회에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기록보존인의 교육적 기반을 조성하고, 자격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그것의 한 방법이다.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국가의 모든 정부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기록보존 전문인력의 수요가 인식되고 창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요구는 기록보존전문직의 실무능력과 고용성과의 객관적 확인을 통해 증대될 것이다. 사회기능의 개선과 잠재적인 수요의 창출을 위해 대학은 전문지식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

2. 기록보존 교육과정의 성격

기록물의 양적 증대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기록보존인의 책무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록보존인의 전문성 확보이다. 이는 공식, 비공식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기록보존인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습득은 직장에서의 실무훈련에만 의지할 수 없으며, 취업을 전후로 공식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¹²⁾ 비록 기록보존인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닐 수 있으나, 전문직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기록보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록보존 전문직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기록물의 생성배경 및 활동, 기록물의 성격, 기록보존활동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기록물의 생성배경과 생산활동에 관한 지식은 기록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며, 기록물에 관한 지식은 궁극적으로 기록보존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기록보존 교육과정은 경험적 실무적 요소가 많다. 그러나 그 학문적 기초를 이루는 사상과 원칙, 방법론의 이론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무중심의 직업훈련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정신을 함양함으로써 현장에 나아가서도 꾸준히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록보존학(archival science)은 기록물과 기록보존활동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기록보존활동은 일반적으로 역사학이나 사회과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문분야가 기록보존과 관련해 유용한 배경 및 주제 지식을 제공한다. 특정 주제의 기록물을 다루는 기록보존소에서는 그 업무수행에 특정 주제에 관한 학문적 배경이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기록보존 전공교육 이전에 무엇을 전공하였는가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기록보존 교육과정은 학제적인 성격으로 인해 역사학이나 문헌정보학, 행정학 등의 관련학과에 설치될 수 있으며, 두 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그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기록보존인은 역사학, 문헌정보학의 두 개 학위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에서 신입 기록보존인은 대체로 학사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기록보존학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이수의 자격이 요구된다. 실제 기록보존인들의 학부전공은 매우 다양하나, 대부분 역사학이나 문헌정보학의 석사학위를 받으며, 그 두가지 학위를 소지한 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¹³⁾

12)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기록보존실무론. 서울, 동기기록보존소, 1992 p. 15-16.

기록물은 발굴되는 문화유산이라기 보다는 대량 생산되는 문헌정보이며, 기록보존인은 기록물의 해석자라기 보다 기록물의 전달자이다. 기록보존소는 역사연구기관이 아닌 정보관리기관이다. 넓은 의미에서 기록보존인이 다루는 기록물은 문헌정보의 부분이며, 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기록물을 보존하는 활동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헌정보를 관리하는 활동에 다름 아니다. 기록보존학의 모든 주제는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연구범주에 속한다. 역사학은 단지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일부를 제공할 뿐이다. 그러므로 기록보존학은 역사학의 보조학문이 아니라 문헌정보학의 분과학으로 자리함이 마땅하다.

본질적으로 기록물의 생산, 유통의 환경과 기록보존활동은 도서를 중심으로 한 그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 문헌정보학의 원칙과 방법론만으로 이를 수용하고 해석하려는 것은 무리이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지식 없이 기록보존활동에 도서관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최선이긴 하지만 이상은 아니다. 이는 편견을 보편화할 우려가 있다. 기록보존인과 도서관인의 활동영역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문헌정보학과는 기록보존인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장치이다.¹⁴⁾ 그러나 현재의 형식적인 수준으로는 기록보존인의 양성을 자임할 수 없다. 오히려 기록보존의 이론과 기술을 수용할 뿐이다.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기록보존인은 역사적 기록물의 보호자이자 해석자로서 두가지 책무를 지니고 있었다.¹⁵⁾ 그리고 기록보존학이 역사적 기록물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록보존 교육과정도 역사학과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역사학은 기록보존학을 단지 역사담구를 위한 도구로 삼을 뿐이다. 역사학의 연구범주에 속하지 않는 기록보존의 방법론은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서지학이 역사학의 보조학문으로 개척되었으나, 문헌정보학의 분과학으로 정립됨으로써 그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참고해야 한다. 독자적인 연구성과와 전문지식이 바로 인류의 문화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분명한 논립목적의 지닌 학문이어야 한다. 문헌정보학의 영역 내에서 기록보존학은 도서관학, 서지학, 정보학 등과 더불어 하나의 분과학으로서 분명한 존재 가치를 지닌다. 한국의 기록보존학은 서구와 같이 역사학 관련단체나 학자의 노력에

13)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op. cit., p. 1.

14) T. R. Schellenberg, The Management of archive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65. p. 70.

15) William J. Orr, "Archival training in Europe," American Archivist, Vol. 44(winter 1981), p. 27.

의해 개척되어온 전통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유럽의 기록보존학자들은 기록보존 교육과정을 전망함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역사학 및 보조학문과 연계되어온 기록보존교육은 반드시 정보학의 범주 내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함을 강조하였다.¹⁶⁾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와 같이 역사가 오래지 않은 나라에서 기록보존 교육프로그램은 상당수 문헌정보학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기록보존 전문교육이 문헌정보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¹⁷⁾

영국 런던대학교는 도서관기록정보대학(School of Library, Archive & Information Studies)에 기록보존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그 전공교과를 고문서학, 외교문서, 기록물관리, 기록보존소경영, 영국행정법률사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¹⁸⁾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기록보존인과 사서의 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이 통합 개설되고 있다. 단지 그 전공에 따른 선택교과목에서 사서는 도서, 기록보존인은 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¹⁹⁾ 미국에서 기록보존 교육과정이 문헌정보학과에서 이루어질 경우, 교육은 대개 보존론, 비도서자료조직론, 특수자료론, 데이터베이스관리론, 자동화된 등의 교과로 구성되며, 역사학과에서 이루어질 경우, 그러한 교과는 적은 대신 사료편집, 지방역사, 계보연구, 역사관경영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⁰⁾

미국의 초기 기록보존교육은 기록보존입문, 기록보존, 현장실습의 세 교과가 개설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는 기록보존실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보존 전문직의 교육과정이 보다 구체적인 기록보존 이론 및 실무교과를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왜곡시킬 문제까지 안고 있었다.²¹⁾ 최근 기록보존인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기록보존교육은 그 질과 양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

16) Paule Rene-Bazin, "The future of European archival education," *American Archivist*, Vol. 55(winter 1992), p. 60.

17) I. M. N. Kigongo-Bukenya, "Education and training of archivists at the East African school of librarianship in the 1990s and beyond," *American Archivist*, Vol. 56(spring 1993), p. 358-365.

18)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영국 런던대학 기록보존학과정," 기록보존, 2호(1988), p. 64-71.

Michael Roper, "Archival education in Britain," *American Archivist*, Vol. 50(fall 1987), p. 587.

19) Luciana Duranti, "Education and the role of the archivist in Italy," *American Archivist*, Vol. 51(summer 1988), p. 351.

20) Timothy L. Ericson, "Professional associations and archival education," *American Archivist*, Vol. 51(summer 1988), p. 304.

21) Richard J. Cox, *American archival analysis*. Metuchen, Scarecrow, 1990. p. 107.

대되는 경향이 있다. 석사과정에 전공교과가 다수 개설되고, 전공과정이 설치되는가 하면, 복수전공제도 실시되고 있다.

미국기록보존협회에서 마련한 기록보존학 석사과정(Master of Archival Studies)의 설치지침²²⁾을 보면, 기록보존교과는 학생들이 전공학문의 이론과 방법론, 실무에 관한 기초를 다지고, 전공과 관련된 학문분야의 지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며, 학문적 연구수행 능력을 마련하고, 전문적 사회적 책무와 윤리적 법적 차원의 직무에 대한 의식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II. 기록보존학전공 교과영역

전문직의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은 전문직이 맡은 바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권위, 자격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학생들이 해당 전문직의 사회적 사명과 전공관련 이론 및 실무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적절히 구성되어야 하며,²³⁾ 다른 전공과 구분되는 핵심적인 교과목이 그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

기록보존학전공 교육과정의 교과영역은 일반적으로 관련지식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환경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배경지식영역, 기록물의 성격과 기록물의 보존원칙 및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핵심지식영역, 그리고 기록보존과 밀접히 관련된 학문의 원칙과 요소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보완지식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교과영역은 주제에 따라 기록물의 본질, 기록물의 배열 및 기술, 기록물의 평가와 수집, 기록보존소의 역사와 조직, 기록물의 접근 및 이용 등을 다루는 기록보존학영역, 외교문서나 고문서의 원문접근을 위한 언어학영역, 기록물 생산활동과 조직의 법률적 배경, 기록물의 법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법률학영역, 공공 및 민간기관

22)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op. cit., p. 3-7.

23) 최성진, "정보학교육의 개혁방안연구," 도서관학, 16집(1989. 6), p. 115-117.

의 경영, 조직, 명령, 기능, 활동, 서어비스 등의 발전을 다루는 경영, 행정, 역사학영역, 그리고 정보자료의 성격과 전달, 보존, 이용에 관한 개념과 원칙, 기술을 제공하는 문헌정보학영역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기록보존학전공 교과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록보존의 핵심지식을 제공하는 교과 위주로 그것을 구성하되, 배경 및 보완지식을 제공하는 교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인턴과정을 포함한 현장조사실습의 교과를 통해 실무경험을 갖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²⁴⁾

우리의 기록보존직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교과를 기록보존학 기초영역과 기록물영역, 기록물관리영역, 그리고 기록보존학 관련영역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록보존학 기초영역

전공지식의 기초가 되는 기록보존학의 이론과 원칙, 기록보존활동의 특성, 기록보존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개괄적으로 제공하는 교과로 구성한다.

1) 기록보존문화사

인류의 의사전달, 기록, 자료처리의 기원과 다양한 문명사회에서의 기록매체, 기록물생산 및 보존방식의 발전과정, 각국의 현행 기록보존제도 등을 다룬다. 기록물, 기록보존집단, 기록물관리방식의 다양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한국 기록보존제도의 역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기록보존학개론

기록물, 기록보존소, 기록보존기능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 기록보존이론 및 방법론, 기록보존전문직의 책무와 직업윤리 등을 다룬다. 정보공개와 비밀보장의 이중적 문제, 새로운 기록매체의 수용논리와 방법론의 개발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24)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op. cit., p. 4-6.

2. 기록물영역

기록물의 물리적 형태나 형식, 출처, 주제 등에 따른 특성과 가치, 종류, 내용, 원문 해독, 감정, 생산과정, 서지정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하는 교과로 구성한다.

3) 한국고문서론

현재 전래되고 있는 고문서의 종류와 용어, 한문과 이두, 초서로 작성된 문서의 해독, 역사적 가치, 서지정보 등을 다룬다. 특히 고문서의 연대고증과 감정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4) 비문서자료론

사진, 마이크로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각자료와 기계가독형의 전자기록매체 등의 특성, 생산과정, 서지정보 등을 다룬다.

5) 정부기록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의 종류와 특성, 작성방법, 가치, 서지정보 등을 다룬다.

6) 민간기록물

민간기업체를 비롯해 교육, 언론, 금융기관, 병원, 종교단체 등에서 생산되는 기록물과 개인이나 문중의 사적 기록물, 사문서의 종류와 특성, 가치, 감정 등을 다룬다.

7) 문서원문강독

한글 이외의 문자로 작성된 문서의 형식과 용어, 원문해독 등을 다룬다. 일제 조선 총독부문서, 미군정문서를 비롯한 한국관련 외국문서, 주요 국가와의 외교문서 등의 내용과 가치를 원문 중심으로 검토한다.

3. 기록물관리영역

기록보존의 일상적 활동을 이루는 기록물의 평가, 수집, 정리, 기술, 보존, 복원, 이용, 참고봉사, 홍보 등 세부적 기록보존기능의 기준과 절차,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하는 교과로 구성한다.

8) 기록물선택론

각종 기록물의 평가, 수집, 이관방법과 절차, 각종 기록보존소의 장서개발 원칙과 방법 등을 다룬다.

9) 비도서자료조직법

도서를 제외한 문서, 시청각 및 전자자료의 분류, 기술에 관한 원칙과 방법 등을 다룬다.

10) 기록보존론

기록물의 물리적인 성질, 손상의 원인과 예방, 복원의 방법 및 기술,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시설과 장비, 보존환경, 보존 및 보안시설, 장비의 기준과 규격 등을 다룬다.

11) 기록보존소경영론

기록보존소의 조직과 자원의 관리, 분석, 개발, 프로그램계획, 의사결정, 기관 간 상호협력의 원칙과 방법 등을 다룬다.

12) 기록보존자동화론

기록보존업무의 자동화 방법과 데이터베이스, 정보처리, 컴퓨터 및 정보통신분야의 관련기술 등을 다룬다.

13) 현장조사실습

각종 기록보존기관 및 부서의 현장에 나아가 이론적으로 배운 전공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고, 경험적으로 확인하며, 기록보존 현장에서의 문제를 조사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한다.

4. 기록보존학 관련영역

기록보존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기초를 제공하는 학문, 기록물의 생산 및 유통, 기록보존활동에 유용한 배경 및 보완지식을 제공하는 학문의 기본 교과로 구성한다.

- 14) 연구조사방법론
- 15) 문헌정보학
- 16) 커뮤니케이션론, 매스미디어론, 출판학
- 17) 역사학, 한국사
- 18) 법률학, 저작권법, 한국법제론
- 19) 정치학, 외교학, 한국정치제도론
- 20) 행정학, 한국행정제도론
- 21) 경영학, 한국경제론

IV. 기록보존사서의 양성과정

기록보존사서가 되고자 하는 인원에게 기록보존학 전공교육을 제공하는 공식적인 정규교육과정과 단기연수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1. 대학 학부과정

문헌정보학과는 제도적으로 인문사회계열의 일반적인 학과와 달리 소정의 교과과

정을 이수하면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졸업 후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학과는 그렇지 않은 학과에 비해 많은 전공학점의 이수가 요구된다. 따라서 전공이수학점을 36학점 등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 54학점 이상 이수자에게 2급 정사서, 미만 이수 졸업자 및 전공자에게 준사서 자격증을 부여하기로 의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은 사서자격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기존의 교과과정에는 기록보존학 전공 및 관련교과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과에서의 기록보존사서과정은 기록보존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의 정사서나 준사서자격 취득과정과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기록보존사서과정은 교직과정이나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의 형식으로 개설되거나,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대개 교직이나 사회교육전문요원은 20학점 이상의 해당 교과목과 현장실습, 부전공은 해당 전공교과목 21학점, 복수전공은 해당 학과의 전공교과목 최소 36학점에서 54학점의 이수를 요구한다. 따라서 기록보존사서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20학점 이상의 기록보존 전공교과를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록보존사서자격 취득 희망자가 정사서자격을 함께 취득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전공교과 54학점과 기록보존학 전공교과 20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타과 전공학생이 기록보존사서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록보존학 전공교과 20학점과 문헌정보학 전공교과 36학점을 최소 이수토록 기준을 정하고, 단지 기록보존학 전공교과 20학점만을 이수한 경우에는 단지 기록보존직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인정하는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기록보존사서 전공교과는 영역별로 적절히 개설하되, 기록보존학 기초영역의 교과와 보존론은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현장조사실습은 학점이 없이 방학기간동안 이수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기록보존학 관련 영역의 교과는 기록보존직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공학과와 긴밀한 협력체제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2.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에 기록보존학전공을 개설하여 기록보존의 실무와 연구능력을 갖춘 기록보존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에서 기록보존학전공 석사과정의 교과는 일반적으로 기록보존론과 기록물관리론, 현장조사실습의 세 과목을 근간으로 기록보존소경영론과 기록물영역의 교과들이 다수 개설되며, 그 밖에 기록물평가 및 장서개발, 기록물복원 및 수선, 기록보존자동화 등 다양한 교과가 개설되고 있다.

우리의 실정에서 기록보존학전공 석사과정은 20학점 내외의 전공이수학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학부의 예와 같이 영역별로 관련교과를 적절히 개설하되, 해당 교과에 교육은 조사연구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보존사서의 자격취득은 학부 문헌정보학 전공자로 한정하고, 타 전공출신자는 기록보존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인정하되, 학과 내 석사과정 복수전공제를 통해 기록보존사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3. 단기교육 및 연수과정

일반적으로 단기교육 및 연수과정은 계속교육의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자격의 취득수단이 되고 있다. 기록보존사서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단기연수과정은 국가의 중앙기록보존기관이나 전문단체, 대학이 중심이 되어 운영해야 한다. 우리의 실정에서는 정부기록보존소나 사서교육원이 단기연수과정을 개설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들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에서 미처 기록보존학을 전공하지 못한 기록보존기구의 기간요원 및 신규 채용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전공교과는 학부 및 석사과정과 마찬가지로 최소 2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되, 영역별 교과는 실무중심으로 적절히 구성한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문헌정보학 전공출신자는 기록보존사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 전공출신자는 기록보존직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인정하되, 기록보존사서의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사서교육원은 복수전공제, 정부기록보존소는 각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나 사서교육원,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학점교류나 위탁교육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리고 이 때 이미 정규교육과정에서 이수한 동일교과목은 인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

V. 기록보존사서직 제도화의 조건

기록보존분야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관계법률의 제정이다.²⁵⁾ 그러나 여기에는 공통된 인식이나 개혁의지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기록보존 전문인력의 사회적 수요 즉, 취업의 기회가 창출되고 보장되지 않는 한 기록보존전문직 교육은 공론에 그칠 뿐이다. 그러나 불확실성만으로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 상실된 기록은 회복되지 않는다. 그것은 역사의 상실을 의미한다. 기록보존의 법적, 직업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기록보존 전문직의 존재는 소중하며, 이 변화의 시기에 더욱 절실하다.

현재의 기록보존집단이 기록보존사서, 기록보존직의 제도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는 전공교육 이수자에 대한 자격, 전문단체의 결성으로 판단된다.

정규교육이나 단기연수과정에서 기록보존학전공을 이수한 인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은 배타적인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자격의 조건과 심사 등의 세부적인 문제는 전문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나, 기록보존사서제는 도서관계의 협조가 요구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고시제의 도입이다. 고시제는 자격강화와 전문성확보를 위해 시행할 가치가 있다. 역시 전문단체가 기록보존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주관하여 실시토록 한다. 기록보존학전공 석사의 경우 학위논문으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은 될 것이다.

25) 김태승, "국가기록보존소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기록보존, 4호(1991), p. 11-14.

김상호, "한국의 현행 정부기록보존제도에 대한 고찰," 도서관학논집, 25집(1996. 겨울), p. 226.

미국에서 1989년에 설립된 ACA(Academy of Certified Archivists)는 기록보존 전문직의 자격을 인증하는 기관으로서 고시제를 채택하고 있다. ACA는 자격시험을 통해 기록보존인으로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정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록보존실무의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고시의 영역(구성비)는 기록물의 선택(20), 기록물의 배열 및 기술(20), 기록물의 이용 및 참고봉사(20), 기록물의 보존 및 보호(10), 기록보존소 및 기록물의 홍보(10), 기록보존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10), 전문직업인의 법적 윤리적 책무(10) 등이다. 여기서 기록물이란 공사기관의 현시적 비현시적 문서, 사본, 사기록물을 의미한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석사과정에서 기록보존교과를 최소 9학점(16주수업)이나 12학점(12주수업)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기록보존실무 1년이상 경력,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기록보존실무 2년이상 경력, 또는 1999년 이후 폐지될 잠정적인 조건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기록보존실무 3년이상 경력 등이다. 여기서 기록보존 실무경력은 기록물의 수집이나 보존, 관리, 참고봉사, 통제에 관한 한가지 이상의 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후 갱신해야 한다.

우리의 실정에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현장실무경력²⁶⁾을 응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기록보존직 희망자에게 실무경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기간동안에 현장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학조건이나 자격취득조건으로 이를 명문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은 될 것이다.

기록보존사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대학의 책임이 아니며, 기록보존 현장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자 간의 통로가 개설되어야 하며, 조사와 경험의 기회가 현장에서 기꺼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록보존 전문단체의 결성은 모든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긴요하다. 전문단체는 제도적으로 국가 및 공공의 기록물 생산 및 보존 기관들이 기록보존전문직의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민간기업 및 단체의 각종 기록관리 및 보존부서로 그 진로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26) 영국 런던대학의 석사과정에서는 기록보존교육에 앞서 기록보존소의 정규직원이나 자원봉사자로서 최소 1개월의 실무경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개는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지니고 있다.

VI. 맺음말

기록보존분야는 아직 소수의 인원을 요구한다. 문헌정보학이 국민과 일반 연구집단을 위한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토대로 발전하였다면, 기록보존학은 국민과 역사 연구집단을 위한 정부와 공공의 기록보존소를 토대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기록보존학이 민간단체 및 기업을 위한 기록보존기구의 활동에 기여할 때, 그 사회적 기능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전문인력의 수요도 창출된다.

기록보존소의 인원은 기록보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직과 기능직으로 적절히 구성되어야 한다. 기록보존전문직은 기록보존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핵심적인 실무기능을 수행할 기록보존사서직, 기록보존 행정영역에서 지원기능을 수행할 기록보존행정직, 기록보존 기술영역에서 보조기능을 수행할 기록보존기술직, 그리고 기록물평가 및 활용영역에서 학술기능을 수행할 기록보존학예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기록보존전문직이 독자적인 영역에서 기능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전공지식과 기술의 바탕 위에 일정수준의 기록보존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직의 양성이 기록보존의 질적 발전에 필수조건이나, 양성을 위한 제도 자체만으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전문직에 적절한 신분 및 처우보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과 학교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인재양성에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록보존분야는 자생적인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그 기반이 취약하다.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는 당연하다. 그러나 건전한 사회는 소외됨이 적다. 소외와 무관심은 기형적인 발전과 편견을 초래한다.

기록유산의 보존은 이미 프랑스혁명에서 국가정부의 책무로 인식되었다. 우리 구성원 대다수가 기록보존을 단지 과거 유산의 보유라는 소극적인 행위로 치부하고 있으나, 그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다. 기록보존전문직의 양성과 훈련에 관한 논의가 학계와 정책당국에서 진행되어 기록보존발전의 기초가 다져져야 한다. 사회적 요구의 수용을 위한 문헌정보학의 전공영역 확대와 세부 전문직의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개편, 전문성의 강화를 위한 전공학점의 상향조정을 지지한다. 기록보존 전문단체의 결성만큼이나 기존단체 내의 기록보존분과조직의 마련을 기대한다.

이미 우리나라의 출판계와 기록보존계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헌정보학과가 그 전문인력양성의 기능을 맡아줄 것을 기대하였다. 정보화 사회에서 문헌정보학과는 이질적인 학과와 학부제로 통합 편입되기보다는 오히려 문헌정보학부 내에 도서관정보학전공, 기록보존학전공, 서지출판학전공, 언론매체학전공 등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것이 비록 최선일지라도 우리의 기록보존집단이 문헌정보학계의 인식전환과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차선책에 불과하다. 학문적 탐구와 인재양성, 기술개발을 위한 1960년대 한국 도서관계의 노력이 2000년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한국 기록보존계에 절실하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A Study on the education programs for the archival librarian in Korea

Kim, Sang-H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education programs for the archival librarian in Korea. The importance of archival work requires that archivists should receive an archival education at university. But there is no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in Korea.

The interdisciplinary character of archival studies programs make it possible to place them in a variety of setting, such as a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artment of history. Currently, archival education must assume a much more prominent role with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ors, increasingly concerned with their own survival, seek rational ways to diversify their area. They are looking at mergers with allied fields. Archival education programs will find a welcome home in a number of existing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rchival education programs could be provided according to three categories : undergraduate coursework, master of archival studies, an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The body of knowledge that a student should master as part of an archival education program is classified here as basic knowledge of archival studies, specified knowledge of archives and records, practical knowledge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and complementary and contextual knowledge of archival studies.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aegu University